

상부사 “아직”, “이미”, “벌써”의 의미와 화용 비교*

염 재 일
(홍익대학교)

Yeom, Jae-Il. (2014). Comparis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aspectual adverbs ‘acik’, ‘imi’, and ‘pelsse’. *Language Research*, 50.3, 669-695.

In this study I claim that *acik* ‘still’ and *imi* ‘already’ are not in a duality relationship. In some cases, the negation of a sentence with *imi* has the same meaning as the corresponding sentence with *acik not*, just because the context introduces a couple of temporally ordered situation types. A sentence with *imi* and one with *acik* share the same appropriateness conditions in which there is a series of situation types (... , Q, ... P, ...) in which one, say *P*, is a topic and there are some others preceding it. And for a topic time *t*, the issue is whether the topic situation type is realized at *t*. *imi(t,P)* asserts that the situation type *P* is already realized at *t*. For a situation type *Q* which precedes *P*, *acik(t, Q)*, which entails ‘ $\neg P(t)$ ’, asserts that the situation type *P* is not yet realized. This analysis applies to cases where more than two situation types are involved. *pelsse* ‘already’ can be compared with *imi* in that it does not require any topic situation, while both of them can be used without much meaning difference in some cases. *pelsse(t, P)* means that *P* holds at *t* and *t* is prior to the time at which *P* is expected to be realized, or to the topic time. When *pelsse* is used with the latter meaning, it can be replaced with *imi*.

Keywords: Korean aspectual adverb, acik, imi, pelsse, still, already, topic situation type, temporally ordered situation types

1. 소 개

국어의 상부사 “이미”와 “아직”은 어떤 경우에 상호 정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A: 철수가 이미 도착했나?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이 본 논문의 논의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부 예문을 개선할 수 있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겠으나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B: 아니, 철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2) A: 철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B: 아니, 철수는 이미 도착했어.

이러한 관계가 상부사의 쌍대성 관계(duality relationship) 분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분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들 둘 사이에 다른 제약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개체수준(individual-level predicate)의 술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똑똑하다”는 시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특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술어와 다르다.¹⁾ 그런데 이런 술어가 “이미”와는 쓰여도 “아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은 두 부사의 쌍대관계를 가정하여 적은 것이다. 두 문장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3) a. 철수는 이미 똑똑하다.

b. ??철수는 아직 안 똑똑하지 않다. (= 철수는 아직 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호 정의적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두 상적 부사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선행하는 상황에 대한 전제를 중심으로 포착하고자 하였으나 위 두 문장의 차이는 선행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제약에서 오는 것 같다. 즉,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후에 상황이 바뀌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되지만, “이미”는 이후 상황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영속적인 술어가 가능한 것 같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 술어에 대한 서로 다른 상적 제약을 가지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4) a. 철수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

b. 철수는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다.

(5) a. 철수는 이미 그 일을 끝냈다.

1) Mittwoch(1993:74), van der Auwera (1993) 등에서도 비슷한 예를 들고 있다.

i. A: I've applied for American citizenship.

B: Is your husband also applying?

A: He is already American, for he was born here.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already를 사용하고 있다.

b. ??철수는 아직 그 일을 끝냈다.

즉, “이미”는 술어의 상적 제약을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문장의 나머지가 지속되는 상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아직”은 “이미”보다 더 많은 제약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Michaelis (1993) 이후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지만, 이것이 분석의 제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한편, “벌써”는 의미적으로 “이미”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대신에 “벌써”를 써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6) A: 철수의 주소를 미리 알아보면 어떨까?

B: 벌써/이미 알아보고 있어.

그러나, 이 둘이 함께 쓰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7) 철수가 {벌써, ??이미} 집에 가려고 한다.

이 문장에서 이 둘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벌써”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예정하는 일에 쓰일 수 있지만 “이미”는 계획하거나 예정되는 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벌써”의 의미가 “이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벌써”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왜 “벌써”와 “이미”가 함께 쓰이기도 하고 달리 쓰이기도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세 상적 부사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에 근거하여 각 상부사들의 제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미”를 중심으로 그것과 의미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아직”과 비교하고, 또한 의미적으로 같은 편에 있는 “벌써”와 비교함으로써 상부사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세 상부사의 의미를 체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쌍대성 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전 연구의 문제점들을 극복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2절에서는 이전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분석의 방향을 알아본다. 3절에서는 “아직”과 “이미”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것이 이 두 상부사의 제약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4절에서는 “벌써”가 “이미”와 어떻게 다른지 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벌써”의 의미를 중의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5절에서는 본 논문의 논의를 정리한다.

2. 이전 연구에 대한 고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와 “아직”이 서로 상호 정의적 의미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²⁾ 독일어에 이에 대응되는 *schon*과 *noch*가 있고 영어에는 *already*와 *still* 등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Löbner (1989, 1999)는 이들 사이에 쌍대성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서현 & 이정민(1999)도 국어의 상부사들의 의미를 쌍대적 관계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후 많은 상부사 연구들이 이 이론을 반박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 이론을 반박하는 Israel (1995)와 Michaelis (1996)는 Hoepelman and Rohrer (1981)의 기본 생각을 따라 상부사를 척도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Lee (2008)는 이들의 분석을 국어의 상부사에 적용하면서 이 둘의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다. 쌍대성 관계에 의존한 분석은 어떤 체계 속에서 상부사들의 의미관계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상부사들이 그런 상호 정의적 의미를 가진다면 그 분석은 이론적 동기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1절에서 언급하는 각 상부사들의 상적 제약을 단순히 각 상부사의 특이한 특성으로만 간주할 뿐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분석들은 핵심적인 설명에조차 문제가 있다. 본 절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Löbner (1989, 1999)는 독일어의 *schon*과 *noch*, *noch-nicht*와 *nicht-mehr*가 서로 쌍대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schon*에 대응되는 *already*와 *noch*에 대응되는 *still*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8) <i>still</i> (t,P)	단언: P(t); 전제: P(t') (t' < t)
<i>already</i> (t,P)	단언: P(t); 전제: (¬P)(t') (t' < t)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말에서는 “이미”와 “아직”이 쌍대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Löbner의 분석은 Krifka (2000)가 지적하였듯이, 쌍대성 관계에 전제라는 것이 관여되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쌍대성 관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와 “아직”이 쌍대성 관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외부부정과 다른 것의 내부부정과 의미가 같아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2) 이지영(2010)에 의하면 “아직”의 의미가 현재의 의미로 확립된 것은 비교적 근대국어에 이르러서라고 주장한다. “이미”가 현재의 의미가 확립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둘이 쌍대성 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의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직”의 의미적 변화는 어쩌면 보편적인 의미관계를 따라 변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9) a. 미나가 [아직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부정)
 b. 미나가 이미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부부정)
- (10) a. 미나가 [이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부정)
 b. 미나가 아직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부부정)

즉, “아직”의 외부부정과 “이미”의 내부부정의 의미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는 둘 다 ‘전에 책을 가지고 있었다’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미”의 외부부정과 “아직”의 내부부정은 둘 다 ‘전에 책을 안 가지고 있었다’를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쌍대성 관계는 전제는 공유하되 단언 사이에 쌍대성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은 일반적인 쌍대성 관계와는 달리 내부부정은 전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라서 “이미(t, P)”와 “아직(t, P)”은 원래는 전제가 다르므로 직접 의미적 관계를 말할 수 없고, “이미(t, P)”와 “아직(t, not-P)”이 전제가 같아짐으로써 둘 사이의 부정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론을 따라서 전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둘 사이의 관계는 쌍대관계가 아니고 단지 서로 (외부)부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한 부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 (11) ¬[미나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
 = 미나가 아직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단언 부분만 고려하면 두 문장은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는데, “이미”와 “아직”은 비단언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쌍대성 관계 분석의 문제는 이 분석에서 이들 상부사들의 전제로 제시된 것의 전제로서의 지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already* (t,P)가 이전의 *not-P*의 상태가 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Michaelis (1996)가 지적하였다.

- (12) You don't want to put a humidifier in there (Texas).
 It's already humid where you are. You'll be drenched.

여기서 Texas가 *humid*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영속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3)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13)에서 보듯이 국어의 “이미”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쌍대성 관계

분석에서는 “이미”와 “아직”이 내부부정을 통하여 전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를 쓰거나 “아직”을 쓰거나 전제를 맞추면 두 문장 모두 좋거나 나쁘거나 하여야 하는데, 영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술어를 사용할 경우 “이미”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은 문장을 이상하게 만든다.

(13) A: 철수는 이미 둔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어.

B: ??아니야. 철수는 아직 똑똑해.

(14) ??2+2가 아직 4야.³⁾

같이 전제를 만족시키지 않는데 “아직”만 이상한 것은 이전 상황에 대한 전제를 가정하는 쌍대성 관계 분석을 의심케 한다. “아직”-문장이 이상한 것은 이전 상황에 대한 전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것에 기인한다. 즉, “아직”은 나중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둔하다/똑똑하다’는 특성은 영속적 특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Hoepelman and Rohrer 1981; van der Auwera 1993; Michaelis 1993) (14)에서도 2+2가 나중에는 4가 아닐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장이 이상한 것이다. 이 두 상적 부사의 분석은 이 둘의 상적 제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Löbner의 분석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van der Auwera (1993)가 지적하였듯이 *already*와 *still*이 쌍대성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에서 쌍대성 관계로부터 a가 성립하는데, 한편 b는 직관적으로 참이다. 이로부터 c의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15) a. It isn't the case that it still is not raining. ⇒ It is raining already.

b. It is finally raining. ⇒ It isn't the case that it still is not raining.

3) 익명의 논평자 중에 이 문장은 “이미”와도 어울리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예는 앞에서 의 논의에서 보듯이 어떤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그 배경을 좀더 쉽게 떠올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i) 2+2는 이미 4이나 다른 답은 찾을 필요 없어.

- c. (!) It is finally raining \Rightarrow It is raining already.
(\Rightarrow 는 함의관계)

여기서도 already가 이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가정함으로써 finally와 전제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It is finally raining이 It is raining already를 함의한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상황을 사실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둘 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이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같은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만 finally라고 하면 이론적 분석을 떠나서 직관적으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최근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게 하지만 already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단지 객관적으로 일의 진행상황을 기술하는데, 목표가 되는 상황이 현재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함을 기술할 뿐이다. 이것을 보면, 상부사 간의 의미관계는 단순히 명제적 의미와 전제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상부사의 의미를 규명할 때는 명제적 특성 혹은 객관적 상황의 전개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4-5)에서 지적하였듯이, “아직”은 “이미”와는 달리 상적 제약이 있다. 여기에 다른 예를 들었다.

- (16) a. ??철수는 아직 왔어.
b. 철수는 아직 안 왔어.
c. 철수는 아직 배가 고파.
d. 철수는 아직 자주 와.

한 사건이나 제한된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와는 쓰일 수 없고, 원래의 상태술어나 사건동사의 부정을 통한 사건이 없는 상태나 총칭문이나 빈도 문장 등만이 올 수 있다. 이것을 미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속성이라고 하기도 한다(김진수 1985, Michaelis 1993, 이지영 2010). 이것을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Klein (1994)의 용어를 사용하면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시가 주제시(혹은 참조시)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4) finally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현은 “마침내”가 있다. 그런데 “마침내”와 “이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같이 쓸 수 없다.

- i. a. 철수가 마침내 내일 온다.
b. ??철수가 이미 내일 온다.

이것을 보면 “이미”와 “마침내”는 다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상적 부사들의 특징은 명제적 의미보다는 화용적 영역의 의미가 의미관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약 또한 Löbner의 분석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 않]”과 “아직”은 같은 상적 제약을 보인다.

- (17) a. 철수는 이미 [행복하지 않]아. (이미 불행해)
 b. 철수는 아직 행복해.

- (18) ??철수는 이미 [오지 않]았어.
 Cf. ??철수는 아직 [오]았어.

(17)에서는 상태술어가 쓰이면서 “이미 ... 않”과 “아직”이 모두 괜찮지만 (18)에서 처럼 사건 술어가 쓰이면 이상하다. “이미 [... 않]”과 “아직”은 사건시가 주제시를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아직 ...않”과 “이미”는 그런 제약이 없다. 사건 술어든 상태 술어든 쓸 수 있다.

- (19) a. 철수는 이미 [오]았다.
 b. 철수는 이미 [행복하]다.
 c. 철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d. 철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

이러한 관찰에서 “이미”와 “아직 ... 않”, 그리고 “아직”과 “이미 ... 않” 각각의 짝이 같은 제약을 보인다는 것은 얼핏 같은 전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제약을 보이는 것이고 쌍대성 관계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언급된 상황 이전의 상황에 대한 전제가 두 상부사의 의미를 연결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미(t, not-P)”와 “아직(t, P)”이 모두 이전에 P하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P가 미완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이미”와 “아직”이 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문장이라고 가정하면 하나의 부정이 다른 것의 긍정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면 그 두 문장은 같은 상황을 기술해야 하므로, 만약 하나의 긍정이 의미에서 오는 상적 제약이 있다면 다른 것의 부정도 같은 상적 제약을 보일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Löbner의 쌍대성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제에 대한 주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Lee (2008)는 좀 다른 분석을 제시한다. 영어에서 강세가 없는 still과 강세가 가는 STILL을 구분하고 “아직”은 still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미”는 “아직”에 대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 already는 “벌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이미”와 “아직”

에 대하여 먼저 논하면 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20) 아직

단언: P(t); 전제: \neg [FINISH[P](t')] ($t' < t$)

(21) 이미

단언: P(t); 전제: START[P](t') ($t' < t$)

즉, 이 둘은 단언은 동일한데 전제만 다른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Löbner와는 달리 “이미”의 전제와 “아직”의 전제가 서로 부정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달리하는 것은 반대로 Löbner가 포착할 수 있었던 “이미”와 “아직”의 의미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와 “아직”이 모든 경우에 쌍대성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 쌍대성 관계 혹은 의미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직관적으로 (22)에 있는 두 문장은 의미가 대체적으로 같다. 그런데 위 분석을 적용하면 두 문장의 전제가 달라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22) a. 철수가 [아직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9))

b. 철수가 이미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23) a. 전제1: 전에 철수가 책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마치지 않았다.

(= 철수가 전에 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b. 전제2: 전에 철수가 책을 안 가지고 있기 시작했다.

(= 전에 철수가 책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

(22)-a의 전제는 (23)-a에 있는 것처럼 ‘전에 철수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지 않았다’가 되고 이것은 결국 철수가 전에도 계속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반면에, (22)-b에서는 전제가 ‘전에 철수가 책을 안 가지고 있기 시작했다’가 되고 결국 전에 책을 누구에게 주든지 잃어버리든지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된다. 이 두 문장의 전제가 반대라는 결론에 이르므로 두 문장의 의미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다.

Löbner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이미(t, P)”가 이전 $t' < t$ 에 $\neg P(t')$ 의 상황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와 “아직”의

의미적 관계를 포착할 수 없는 점은 오히려 후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3)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미”와는 달리 “아직”은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분석 자체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제약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과 “이미 ... 않”만이 미완상의 술어만 허용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다른 상적 부사인 “벌써”에 대하여 Lee (2008)는 ter Meulen and Smessaert (1994)의 “already”의 분석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24) 벌써

단언: P(t);

대체항: not-P(t), or NOT [START [P(t')]] ($t' < t$)

(25) 벌써 배가 고프다.

여기서 not-P는 미완상의 술어에 대한, NOT [START [P(t')]]은 완성상의 술어에 대한 대체항이라고 한다. “벌써 배가 고프다”는 것은 그 문장 자체가 기술하는 배가 고프는 상황 이외에 그것의 대체가 될 수 있는 배가 고프는 상황보다 이전에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이 분석은 “벌써”가 기대보다 일찍이라는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항의 존재에 비추어 일찍이라는 의미가 함축으로서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not-P와 P가 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건동사를 사용하는 경우 NOT [START [P(t')]]의 대체항을 상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26) a. 철수는 벌써 집을 다 지었어.

b. 철수는 벌써 7시가 넘었어.

첫 예로부터 설명하면, 대체항이 ‘NOT [START [집을 다 지었다(t')]]’가 되어야 하는데, ‘집을 다 지었다’는 집을 짓는 과정의 마지막 순간이며 그 순간에 대하여 시작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예에서도 비슷하게 ‘NOT [START [7시가 넘었다(t')]]’가 대체항이 되어야 하나, 7시를 넘는 것은 순간이며 그 순간에 대하여 시작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작하다”는 과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술어들은 과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7시가 넘기 전이 대체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7시가 막 넘었다고 “벌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화자가 “벌써”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7시라는 것을 알고 “벌써”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설명은 직관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의 예에서 “벌써”는 정말로 기대보다 일찍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이유는 대체항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말하는 사람이 떠나기를 기대하는 시간과 비교하는 것이다.

(27) A: 철수가 지금 떠나려고 해.

B: 벌써?

(28) A: 철수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해.

B: ??벌써?

(27)과는 달리 (28)이 이상한 것은 떠나기를 기대하는 시점이 나중에 아니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벌써”는 기대하는 시간보다 일찍이라는 의미가 관여되는 것을 보여준다. 명시적으로 기대보다 일찍이라는 의미와 상충이 일어나게 하면 일찍이라는 의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이상해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함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이미”와 “아직”: 같은 주제에 다른 주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와 “아직”은 서로 밀접한 의미적 관계가 있다는 관찰이 있었는데, 이것이 외부부정과 내부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외부부정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아직”만이 나중에 언급된 상황이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든지 “이미 않”과 “아직”이 술어에 대한 같은 상적 제약을 보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점을 포함하여 “이미”와 “아직”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두 상부사의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특성들을 설명하겠다.

세 상부사 중에 가장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고 특징이 뚜렷한 것이 “아직”이므로 “아직”의 의미부터 논하겠다. 김진수(1985)에서 비교하듯이 “아직”을 “지금”과 비교해서 “아직”이 계속성의 특성을 가진다는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직”의 주장하는 바는 “지금” 혹은 주제시에 관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이전 상황의 연속이라는 것은 주장의 일부가 아니다.⁵⁾ 김진수

5) 여기서 주제시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제와 상을 말하면서 사건시와 발화시

(1985)는 여기에 미완상의 조건을 더했다. 이것을 지속성(continuity)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이지영 2010). Lee (2008)은 “NOT FINISH”라는 전제를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포착하려고 하였다. “아직”의 계속성 때문에 (16)에서처럼 사건 동사가 사용되면 이상해져서 “철수가 아직 왔다”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에 “철수가 아직 안 왔다”는 괜찮다. 그 이유는 철수가 오지 않은 상황은 계속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상태술어가 쓰이면 부정문이든 긍정문이든 문제가 없다.

- (29) a. 철수는 아직 [배가 고프다].
 b. 철수는 아직 [배가 고프지 않다].

상태술어는 부정문이나 긍정문이나 기술되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8)에서도 보았듯이 “이미 ... 않”도 계속성의 제약을 보인다. 그래서 “철수가 이미 [오지 않]았다”는 이상한 것이다. 반면에 “철수가 이미 안 오지 않았다 = 철수가 이미 왔다”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상태술어의 경우 “철수가 이미 행복하다”나 “철수가 이미 행복하지 않다” 모두 문제가 없다. “아직”과 같이 계속성의 제약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의 또 다른 상적 제약은 (13)과 (14)에서 보인 것처럼 함께 쓰이는 술어가 나중에 $\neg P$ 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제약은 없다.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 (30) a. 철수는 이미 [젊지 않다].
 b. 철수는 이미 [살아있지 않다].

이후에 철수가 다시 젊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문장은 문제가 없다. 철수가 죽은 것도 이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외에 참조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참조시를 주제시라고 하기도 한다(Klein 1997 참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있”을 사용하였을 때이다. 예를 들어 철수 왔냐고 물을 때 관심은 지금일 것이다. 그런데 철수가 이미 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과거 시간을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철수가 이미 일주일 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제시가 현재라고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참조시라고 하면 일주일 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묻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발화할 당시 주제시는 현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우리말에서는 과거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완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논할 주제는 아니다.

(31)		아직	아직 [... 많]	이미	이미 [... 많]
	미완상	O	O	X	O
	상황종결	O	O	X	X

즉, “아직”은 긍정/부정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술어가 미완상의 조건과 상황종결이 가능한 술어이어야 하지만, “이미”는 부정의 경우에만 미완상의 조건이 적용되고 상황종결의 조건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간단한 상황을 가정하자. 위의 “이미”와 “아직”이 주는 의미를 주의 깊게 보면, “이미”와 “아직”이 서로 비대칭적이라는 것과 그 비대칭성이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비대칭성은 기준이 한 쪽에 있기 때문이다. 상황유형 P1과 상황유형 P2가 그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상황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종류의 상황인데 그것이 다양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32) (P1, P2는 상황유형, “*”는 주제상황, t는 주제시)

아직: +---P1---+---*P2---+
t

이미: +---P1---+---*P2---+
t

주어진 두 상황유형에서 주제로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나중에 오는 P2라고 가정한다. 즉,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말하면서 P2에 도달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현재가 P1에 있으면 “아직 P1”이라고 말할 것이다. 즉, 현재인 t에 P1의 상황에 있으므로 P1(t)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행이 기준이 되는 P2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아직”을 쓸 것이다. 반면에 현재 P2에 있으면 목표하는 상황에 도달하였으므로 “이미 P2”라고 말할 것이다. 즉 P2(t)가 참인데 기준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미”라고 하는 것이다.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순서가 있는 일련의 상황유형의 연속을 가정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김진수(1985)가 “아직”과 “지금”을 비교하였는데, “지금”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P1과 P2의 순서있는 연속이 가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의 차이를 가져온다.

(33) a. 방이 지금 어둡다. 방이 지금 밝다. 방이 지금 어둡다.

b. ??방이 아직 어둡다. 방이 아직 밝다.

c. ??방이 이미 어둡다. 방이 이미 밝다.

(34) P1: 방이 어둡다; *P2: 방이 밝다

a. 지금(t,P1). 지금(t',P2). 지금(t'',P1)

b. 아직(t,P1). 아직(t',P2). (P1, *P2)의 연속 상황유형 가정하고 P2가 기준

c. 이미(t,P1). 이미(t',P2). (P1, *P2)의 연속 상황유형 가정하고 P2가 기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t,방이 어둡다), 지금(t',방이 밝다), 지금(t'',방이 어둡다)”이라고 말은 여러 번 반복을 하여도 “지금”이 가리키는 시간이 t, t', t''로 진행됨에 따라서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과 “이미”가 사용될 때는 상황유형의 연속, 즉 (방이 어둡다, *방이 밝다)을 가정하고 그중에 ‘방이 밝다’가 기준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말을 반복하면 문제가 된다. (33)-b에서 첫 문장 발화인 “아직(t,P1)”라는 말은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발화 “아직(t',P2)”는 대화 상황에서 P2가 주제의 상황이고 이것이 이미 도달된 상태이므로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미”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33)-b에서 첫 발화가 “이미(t,P1)”라고 하면 문제의 상황 P2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만약 첫 문장을 받아들여려면 주어진 연속상황유형이 (P2, *P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맥락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주제가 다른 가정을 하는 것이므로 동문서답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⁶⁾

지금까지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상황유형이 관여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술어의 극적 대체항, 즉 P에 대하여 ¬P가 대체항이 되어 두 상황 사이에 (P, *¬P) 혹은 (¬P, *P)의 순서쌍이 주어지고 나중 상황유형이 주제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고려되는 상황유형이 여럿인 경우도 있다. 열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현재 7번까지 풀었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35) a. 철수는 아직 6번을 풀어.

b. 철수는 이미 8번을 풀고 있어.

c. ---5번-----6번-----*7번-----8번

아직 아직 이미 이미

6) 만약 이것을 받아들여려면 P1이 이미 도달되었으니 P2도 이미 도달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P2, *P1)이 가정된 상황이고 가장 주제의 핵심이 되는 P1을 언급했으므로 P2 상황이 지나간 것은 당연히 가정되는 것이라서 추가하여 언급하는 것은 어색하다.

여기서 “아직”을 사용하는 것은 이전에는 6번을 푸는 것을 보고 지금도 계속 6번을 푸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차례로 푼다고 가정하고 지금 6번을 푸는 것은 문제가 되는 7번이나 8번을 푸는 것에 비교해서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번을 푸는 것이 주제가 된다면 5번을 풀거나 6번을 풀면 “아직”을 사용하고 7번을 풀고 있으면 “이미 7번을 풀고 있”는 것이고 8번을 풀어도 “이미 8번을 풀고 있”는 것이다. 즉, 일련의 상황유형이 여럿이더라도 이것을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 쪽에 있으면 “아직” 다른 쪽에 있으면 “이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되는 상황유형이 3개 이상인 경우도 두 개가 있는 경우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직”과 “이미”가 순서가 있는 상황유형들 사이에 어디에 놓여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시간적인 관계에 시간표현이 직접 관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부사들이 시간표현과 사용될 수도 있다.

- (36) a. 시간은 아직 2시야.
b. 시간은 이미 4시야.

여기서는 2시라고 하면 그에 대응되는 3시, 4시 등 나중 시간 중에 하나가 주제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아직”은 그 시간에 미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 (37) ... 2시-----3시-----*4시-----5시 ...
아직 아직 이미 이미

만약 4시가 문제가 되는 기준시라고 하면 주제가 되는 시간이 2시인 경우에도 “아직”이라고 할 것이고 3시인 경우에도 “아직”이라고 할 것이다. 어쨌든 “아직 4시가 아니”ㄴ 것이다. 이와 같이 주제시에 주어진 일련의 상황유형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아직”과 “이미”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극성 대체항이 관여되는 경우나 여러 상황유형이 있는 일련의 상황유형을 가정하는 경우나, 시간의 표현이 관계되는 경우나 동일하게 분석을 하게 해준다.⁷⁾

그러면 기준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것은 바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것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시간에 발화맥락에서 정해지는 목표의 상황에 도달했는지가 주제로 결정되고 그 이전 상황이면 “아직”이 되고 그 이후의 상황이 되면 “이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문문과 대답의 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이 세 경우를 Löbner (1989, 1999)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 (38) A: 철수가 왔나?
 B: 응, 이미 왔어.
 B': 아니, 아직 안 왔어.
- (39) A: 철수가 오면 좋겠다.
 B: 이미 왔어.
 B': 아직 안왔어?

철수가 왔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철수가 왔는지를 주제로 만드는데, 이때 철수가 오기로 되어 있고 전에 오지 않은 것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묻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대답이 “이미 왔거나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문제의 상황을 ”Question-under-Discussion 접근 방식 하에서 주제로 간주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개념이다(van Kuppevelt 1995, Roberts 1996, Büring 2003). 그러나, 반드시 의문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예처럼 철수가 오면 좋겠다고 하면 철수가 오는 것이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주제가 되는 상황이 발화시점에 성립하는 가가 문제가 되므로 보통은 현재가 된다. 그러나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 (40) a. 내가 갔을 때는 철수가 아직 점심을 먹지 않고 있었다.
 b.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 철수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기준이 되는 시간이 앞에 주어져 있고 이것이 문장 전체의 주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아직”은 이 기준시에 주제가 되는 상황에 도달했는지에 대하여 답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아직”과 “이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1) “아직(t,P)”

단언: P(t) (t는 주제시)

적절성 조건: SEQ(UENCE)(P, <) = (... , P, ..., *Q, ...)

(..., P, ..., *Q, ...): P와 Q를 포함하여 시간 순의(temporally ordered) 상황유형들로 Q가 주제 상황유형

“이미(t,P)”

단언: P(t)

적절성 조건: $SEQ(P, <)=(\dots, *Q, \dots) \& Q \leq P$ (P와 Q가 순서가 같으면 $P=Q$)

“아직(t,P)”은 주제시인 t에 언급되는 P의 상황유형에 있다는 것이 단언이고 그 상황유형이 주제가 되는 Q 상황유형에 이르지 못한 상황유형이라는 것이 적절성 조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아직”의 의미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미(t,P)”는 주제시인 t 혹은 그 이전에 P의 상황유형에 있거나 있었고 P는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 Q와 같거나 Q보다 후행하는 상황유형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미”의 핵심의미이다. 만약 “었”이 사용되면 이것을 완료와 같이 취급하여 여전히 t에 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⁸⁾ P와 Q가 같은 경우 적절성 조건은 언급된 상황유형 이외에 선행하는 상황유형이나 후행하는 상황유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련의 상황은 꼭 같은 상적 특성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초점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체항일 필요는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42) A: 철수를 달리게 해.

B: 철수는 이미 달렸어.

B': 철수는 이미 달리고 있어.

여기서 B는 ‘달리다’는 특별한 결과상황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었”을 사용하여도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완료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를 사용할 경우 꼭 주제가 되는 시간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그 이전 상황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B'의 경우 진행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과상황이 아니지만 대답으로 적당하다. 이것은 주제 상황이 철수가 달리는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달리기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달리고 있다는 것으로도 달릴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가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상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철수가 달리다”나 “철수가 달리고 있다”나 모두 일련의 상황에 고려된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아직”이 쓰일 경우 그 상황이 나중에 종료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이것은 “아직(t,P)”을 발화하기 위한 적절성의 조건에

8) 국어에서 완료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완료가 영어에서도 결과 상황, 경험, 최근의 소식, 그리고 계속의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말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시간 표현과 함께 쓰여도 완료형으로 쓰는 언어도 있다. 따라서 “었”이 특정한 시간 표현과 쓰이면 과거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기인한다. “아직”은 일련의 상황유형 (P, ..., *Q, ...)가 주어진 상황유형에서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 Q에 미치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유형 P가 끝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을 사용하면 반드시 나중에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반면에, “이미”는 언급되는 상황유형이 목표상황 혹은 그 이후의 상황유형이므로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 상황유형이 종결되는 조건이 없다. 그러면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을 언급할 때 그 이전 상황유형이 선행해야 하는가? 이미 관찰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단지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 등에 의하여 문제의 상황유형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만 가정하더라도 화자는 “이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목표 상황을 시간의 경과 관점에서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 자신은 선행하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목표 상황을 주제라고 하는 것이다. 화자 자신은 목표상황과 이전 상황의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단지 담화의 상황에서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런 상황이 설정되었을 때 화자가 “이미”라는 말을 함으로써 목표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전 상황유형을 가정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3)과 (13)에서 관찰 되는 것이다.

“아직”은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발화 자체가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제가 언급되는 술어와 분명한 관계에 있지 않은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미”는 언급되는 상황이 주제의 상황이므로 주제로 분명히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음의 차이를 가져온다.

(43) A: 철수가 왔나?

B: 이미 왔어.

B': 아직 안왔어.

(44) A: 철수는 뭐하냐?

B: 아직 쉬고 있어.

B': ??이미 쉬고 있어.

(43)에서 철수가 왔는가가 주제가 되는데, B는 그 상황이 이미 만족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B'는 그 상황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만족되지 않은 상황에 이어 만족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시간적 순서에 있는 두 상황유형에 대하여 주제가

되는 후자에 대하여 아직 그 이전에 성립하는 상황유형에 있다는 것이므로 “아직”의 적정성 조건도 만족된다. 반면에 (44)에서 뭐 하는냐가 주제가 되는 것은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이미”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아직”이 성립하는 이유는 아직 쉬고 있다면 쉬는 상황유형 다음 상황유형이 주제가 된다는 의미인데 쉬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은 계속 쉬고 있는지 혹은 쉬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하여 B는 무엇을 하고 있지 않고 쉬고 있다는 답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의 주제와 관련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아직”과 어울리는 술어가 왜 미완성의 상적 특성을 지니는지 설명해준다. 순서가 있는 세 상황유형 P1, P2, P3가 있고 진행상황이 P3에 이르렀는지가 문제인 상황에서 P3에 이르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아직 P1이나 P2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해야 한다. 만약, P1이나 P2를 마쳤다고 하면 마친 후 더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P3에 이르렀는지 확실히 대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예에 적용해보자. 철수가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을 때, 철수가 도착했냐고 물으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면 도착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르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45) A: 철수가 도착했나?

B: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B': 아직 오는 중이야.

B'': ??철수가 출발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오는 중이라고 하면 도착하는 상황에 이르지 못한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나, 철수가 출발을 마친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직”을 사용하면 반드시 미완상의 술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전 상황유형이 종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온전한 대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는 이런 제약이 없는데, 그 이유는 만약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P2라고 할 때, P2가 상태이면 이미 목표 상황에 있는 것이다. P2가 상태가 아니라면 P2를 마치고 P3는 시작하지 않은 경우나, P3를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끝내지 않은 경우나 “이미” 주제가 되는 P2는 종결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는 사용되는 술어에 대하여 “완료”와 “미완”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것은 고려되는 일련의 상황유형에 상황유형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10번까지 풀어야 하고 문제를 차례대로 푸는 맥락에서 7번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한 맥락이라고 가정하자.

(46) A: 철수가 7번을 풀었나?

B: 아니 6번 풀고 있어.

B': ??아니, 5번 풀었어.

B처럼 대답할 때 7번을 풀었는가의 주제에 대해 아직 6번을 푸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7번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반면에 B'처럼 5번 문제를 푸는 것이 끝났다고 말하면 이직도 6번을 풀었고 그 이상의 진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대답을 한 것이 된다. 이 대답이 자연스러우려면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 7번 문제와 5번 문제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하면, “이미 7번을 풀었다”고 해도 되고 “이미 8번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해도 7번 문제를 풀었다는 대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는 상적 제약이 없다.

반면에 “이미 [... 많]”은 같이 사용되는 술어에 대하여 “아직”과 동일한 제약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미 ... 많”이 사건동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난 것이 기준이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절절하게 사용되려면 (P, *¬P)가 일련의 상황유형이고 ¬P가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P가 상태가 아닌 사건인 경우 이미 t 시점 이전에 P의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절대로 ¬P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쉽게 확인될 수 있다.⁹⁾

(47) 철수는 한 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미 [도착하지 많]았다.

첫 문장에서 한 시간 전에 도착한 일이 있음을 말했고 이미 일어난 일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동사의 경우 ¬P가 주제가 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아직”이 사건술어와 함께 사용될 수 없듯이 “이미”는 사건술어의 부정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분석은 “이미”와 “아직”이 극성을 보이는 두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유형 (¬P, *P)를 가정하자. 그러면

9) 임서현 & 이정민(1999)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었”이 결과상황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단지 결과상황인 경우가 완료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아직(t, ¬P)”의 부정이 “이미(t, P)”가 된다. 예를 들어 관계되는 일련의 상황이 (철수가 죽지 않다, *철수가 죽다)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철수가 아직 죽지 않았다”의 반대는 “철수는 이미 죽었다”가 되는 것이다.

(48) ¬(아직(t, ¬P))

a. 단언: ¬(¬P(t)) = P(t)

b. 적정성 조건: SEQ(¬P, <) = (¬P, *P)

c. (a)+(b) = 이미(t, P(x))

이것은 “아직(t, ¬P)”과 “이미(t, P(x))”가 서로 동일한 적정성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단언만이 부정과 긍정이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철수가 이미 죽었다”의 반대가 “철수가 아직 죽지 않았다”가 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관계되는 일련의 상황에 3개 이상의 상황이 관여되는 경우에는 부정을 적용하면 “이미”와 “아직”은 서로 반대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직(t, 철수가 5번 풀고 있다)”라는 발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일련의 상황유형들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을 풀었는지가 주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49) A: 철수가 7번 문제를 풀었나?

B: 철수는 아직 5번 풀고 있다.

(50) 아직(t, 철수가 5번 풀고 있다)

a. 단언: 철수가_5번을_풀고_있다(t)

b. 적정성 조건: SEQ(철수가 5번을 풀고 있다, <) = (... , 철수가 5번을 풀고 있다, 철수가 5번을 풀다, ..., 철수가 7번을 풀고 있다, *철수가 7번을 풀다, ...)

(51) 부정: ¬(아직(t, 철수가 5번 풀고 있다))

a. 단언: ¬철수가_5번을_풀고_있다(t)

b. 적정성 조건: 위와 동일

c. (a)+(b) = ??철수가_5번을_풀고 있지 않다 < 철수가_7번을_풀다

여기서 “아직 5번을 풀고 있다”를 부정하여도 “이미”를 사용하는 어떤 발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즉, “이미 철수가 5번을 풀고 있지 않다”는 발화는 적절하지 않다. 철수가 5번을 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은 철수가 7번을 풀었다는

상황과 순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미 철수는 7번을 풀었다”, “이미 철수는 8번을 풀고 있다”, 혹은 “이미 철수는 8번을 풀었다”라고 해야 적절한 대답이 된다.

그리고, “이미” 그 자체는 기대보다 이르다는 의미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52) A: 좀 늦구나. 6번은 풀었나?

B: 6번은 이미 풀었어. 하지만 좀 뒤져서 좀 서둘러야 해.

여기서 6번 문제를 푼 것이 기대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늦은 진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6번을 풀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주제가 “6번을 풀다”가 되는 것이다. B는 그것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진도가 느리다고 언급하고 있다. 많은 경우 진행이 늦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미”를 쓰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미 P(t)”라고 하고 t가 주제가 되는 시간이고 t 시간에 P가 성립하는가가 주제가 되는데, $\neg P$ 의 이전 상황에서 현재에 P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라고 하면 적어도 t 혹은 그 이전에 P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이미”를 씌으로써 t보다 빨리 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했다는 함축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함축이므로 명시적으로 늦다는 말을 하면 취소되는 것이다.

4. “벌써”의 의미

“벌써”는 “이미”와 의미적으로 큰 차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53) A: 철수가 그 일을 할 차례야. 철수를 시켜.

B: 철수는 {이미, 벌써} 했어.

(54) A: 철수의 주소를 미리 알아보면 어떨까?

B: {벌써, 이미} 알아보고 있어.

언급된 일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미”나 “벌써”는 말하는 시간 이전에 그 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벌써”는 “이미”와 어떤 면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미”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상태의 술어와도

같이 쓸 수 있고 일시적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와도 함께 쓸 수 있다.

- (55) a. 벌써 배가 고프다.
b. 벌써 일어났다.

“배가 고프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일어나다”는 사건을 나타내는데 둘 다 “벌써”와 함께 쓰일 때 문제가 없다. 이것은 “벌써”가 “이미”와 마찬가지로 주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주장하는 문제라면 주제가 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고 “아직” 처럼 그 주제가 되는 상황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벌써”와 “이미”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벌써”는 주제에 대한 조건이 없고 “이미”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 것 같다. 아래 예는 Lee (2008)에서 언급된 예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 (56) A: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철수가 왔어.
B: {벌써, ??이미}?

여기서 “이미”가 안 되는 것은 “이미”는 어떤 사건/상황이 주제가 되고 그것이 아직 일어났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사건/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A가 “새로운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주장하므로 언급되는 상황유형의 진행상황이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진행이 이미 알려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를 사용하기 위한 적절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이 상황에서 “벌써”가 가능한 것은 주제가 형성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미 알려진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놀라움은 철수가 나중에 올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로는 철수가 이미 왔다는 발화로 기대보다 많이 앞서서 일어난 것에 대한 놀라움인 것이다.

그런데, “기대보다 일찍”의 의미는 “벌써”가 쓰이는 의미 중 하나이다. 다음의 예들은 “기대보다 일찍”의 의미는 없다.

- (57) a. 나는 그 일을 벌써 잊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
b. 벌써부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 너 좋아해.

여기서 “벌써 잊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기대보다 일찍 잊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을 하려고 했”다는 말에 가깝다. 이 경우 “벌써”를 “이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벌써”가 “이미”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이 “벌써”의 어떤 단일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가 기대시간과 주제시 두 가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용법의 차이는 다음의 예들의 비교에서 분명해진다. “벌써”는 기대보다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도 쓸 수 있지만, “이미”는 적어도 기준이 되는 시간 즉, 주제시를 기준으로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58) a. 철수가 {벌써, ??이미} 집에 가려고 한다.
 b. 철수가 {벌써, 이미} 집에 갔다.

즉, (58)-a에서는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은 현재 예정된 혹은 의도하는 상황이므로 주제시는 현재이고 사건 상황이 현재 이전에 주어진 상황유형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도 기대되는 시간은 미래일 수 있고 실제 언급된 시기가 그보다 훨씬 빠를 수 있으므로 “벌써”가 사용 가능하다. 반면에 (58)-b에서는 과거에 집에 간 것은 주제시인 지금 이전에 주제의 상황유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미”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벌써”도 주제시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벌써”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벌써”를 쓸 경우 “이미”가 주는 의미보다는 더 “오래 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 (59) 철수는 벌써 떠났어.

한 의미는 철수가 방금 떠났을 때 이 말을 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기대하는데 이미 떠났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의미는 철수가 지금보다 훨씬 오래 전에 떠났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벌써”를 발음할 때 “벌”을 좀 길게 하고 “써”를 올려서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still과 STILL을 구분하듯이 강하게 발음한다고 해서 Lee (2008)에서처럼 “벌써”가 대체항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설명이 안 된다. 이 의미는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떠난 것의 대체항이 발화시간에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어느 경우든 정의된 “벌써”의 의미의 어느 부분도 청자와 공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가 보이는 투사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 (60) a. ??철수가 [가난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b. ??나는 [철수가 가난하지만 행복하기] 바란다.

- (61) a. ??철수가 벌써 오지 않았다.
 b. ??나는 철수가 벌써 배가 고프기 바란다.

“지만”은 대조의 의미의 고정함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것은 부정되지 않으며, 이를 부정하려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처럼 상위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바라다”의 보어로 쓰이는 절에 들어가서 대조의 의미가 바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벌써”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정함축 (conventional implicature)들이 보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벌써”의 의미는 고정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와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반영하여 “벌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62) “벌써 P(t)”
 a. 단언: P(t)
 b. 고정함축: $\exists t'[t < t' \wedge P(t) \wedge \text{long}(t \sim t')]$
 I. t'는 기대되는 사건시, 혹은
 ii. t'는 주제시
 (단, t~t'는 t와 t' 사이의 시간)

여기서 만약 t'가 주제시가 되면 “벌써”는 객관적으로 t가 t'보다 매우 오래 전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만약 t'가 기대되는 사건시를 가리킬 경우에는 “벌써”는 화자의 기대를 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이미”와 “아직”을 비교하면서 둘 다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을 포함하여 일련의 상황유형을 가정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미”는 이미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주제시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충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은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이 이전의 어떤 상황유형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아직”이 미완상의 술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또한, “이미”와 “벌써”를 비교하여 각각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벌써”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그중에 한 가지로 사용될 경우에만 “이미”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벌써”는 시간 상 주제시보다 ‘오래’ 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미”는 주제시와 같거나 그 이전에 주제 상황유형이 성립하면 되지만 “벌써”는 그보다 더 이전이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미”와 같이 쓰일 수 없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화자가 언급되는 상황이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함축이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상부사에 대하여 제한된 용법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세 상부사가 보이는 상적 제약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분석에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설명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분석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상부사 분석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면 다른 상부사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진수. (1985). 시간부사 ‘벌써’, ‘이미’와 ‘아직’의 상과 통사계약. *한글* 189, 87-111.
- 이지영. (2010). ‘아직’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9, 103-128.
- 임서현, 이정민. (1999). 한국어 상 부사의 쌍대성에 관한 연구 - ‘이미’와 ‘아직’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4.3, 431-464.
- Büring, D. (2003) On D-Trees, Beans, and B-Accents. *Linguistics & Philosophy* 26(5), 511-545.
- Hoepelman, J. and Rohrer, C. (1981) Remarks on *noch* and *schon* in German. In P. Tedeschi & A. Zaenen (Eds.), *Syntax and semantics, Tense and Aspect* (Vol. 14, pp. 103-126). New York: Academic Press.
- Israel, M. (1995). The scalar model of polarity sensitivity: The case of aspectual operators. In D. Forget, P. Hirschbüler, F. Martineau, & M.-L. (Eds.), *Negation and polarity* (pp. 209-229). Riverto: John Benjamins Publishing.
- Klein, Wolfgang.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Routledge.
- Krifka, Manfred. (2000). Alternatives for Aspectual Particles: Semantics of Still and Already.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 Linguistic Society*, 401-412.
- Lee, EunHee (2008). Aspectual and Focus Adverbs in English and Korea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6, 339-358.
- Löbner, S. (1989). German *schon-erst-noch*: An integrated analy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167-212.
- Löbner, S. (1999). Why German *schon* and *noch* are still dual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45-107.
- Michaelis, L. (1993). Continuity within three scalar models: the polysemy of adverbial *still*. *Journal of Semantics* 10, 193-237.
- Michaelis, L. (1996). On the use and meaning of *alread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9, 477-502.
- Mittwoch, Anita.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n/Already* and *Noch/Still*: A Reply to Löbner. *Natural Language Semantics* 2, 71-82.
- Roberts, C. (1996) Information Structure in Discourse: Towards an Integrated Formal Theory of Pragmatics. In J. H. Yoon and Andreas Kathol (eds.), *OSU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9: Papers in Semantics, 91-136.
- ter Meulen, A. and H. Smessaert. (1994). Aspectual Focus in English and Dutch, In P. Bosch and R. van der Sandt eds., *Foc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 2. 353-362.
- van der Auwera, J. (1993). *Already* and *still*: Beyond dual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613-653.
- van Kuppevelt, J. (1995) Discourse Structure, Topicality and Questioning. *Linguistics* 31, 109-147.

염재일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과

전자우편: jiyeeom@hongik.ac.kr

접수일자 : 2014. 10. 27

수정본 접수 : 2014. 12. 12

게재결정 : 2014. 12. 16